

하노이 Quang An 꽃 도매시장 현지조사 후기

김경민
인류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연구자는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달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Quang An 꽃 도매시장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현지조사는 연구자의 박사 논문 주제인 “베트남 여성의 비공식 노동과 횡단성”과 관련하여 베트남 하노이의 꽃시장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여성 상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1986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쇄신, 즉 도이머이(Đổi Mới)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내었다. 도이머이의 결과로 급속도로 팽창한 부문이자 베트남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주체는 민간(사영) 부문으로, 특히 서비스와 자영업 부문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여성의 참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의 모순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 현지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맞물리며 빚어낸 결과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의 단면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꽃 도매시장을 연구 장소로 삼았다.

[그림-1] 하노이 Quang An 꽃 도매시장의 모습



Quang An 꽃 도매시장 현지조사 과정

해당 장소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과 교류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손님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들에게는 ‘일하는 공간’인

시장에서 상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라포를 쌓는 것은 오랜 시간과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인류학 민족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특정 집단이나 공동체가 속한 마을,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학교나 교회와 같은 공공 시설)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시장은 그 자체로 '열린 공간'으로서 끊임없이 낮설고 새로운 사람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상인조차도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즉흥성과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공간이었다. 연구자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시장에 방문하여 꽃을 사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여러 상인과 말을 섞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졌을 때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 외에도 상인들을 대신해서 꽃을 팔고,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하고, 점포에서 함께 식사하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원로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지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도 받을 수 있었다. 마을회관 원로들과의 인터뷰와 역사적 자료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기억에 의존한 구술 자료만 수집하여 앞뒤가 맞지 않았던 시장의 역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고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지역/마을의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시장의 탄생과 상인의 상업 활동을 위치 짓는 거시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2] Quang An 꽃 도매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자의 모습



즉흥성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 난무하는 꽃 시장에서의 현지조사는 때때로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우연과 조우, 발견의 기쁨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또한 굴곡진 인생과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살아나가는 상인들의 의연함, 용기, 낙관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것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

연구자가 해당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길거리 상인을 다뤘으며, 이는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길거리 상인-시장)의 관계 및 연결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길거리 상인(비공식 경제)이 상품을 구매하는 직판장인 도매시장(공식 경제)과의 연결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꽃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지난 비공식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시장은 국가(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시장 내 관리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시장 상인들이 관리위원회에 내는 비용은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상인은 관리위원회에 제도적으로 명시된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수입에 따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포(장소) 매매는 전적으로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거래이며, 권리금의 형태로 이양되고 있었다.

연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 주제는 ‘여성/젠더와 비공식 노동’이다. 특히 시장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젠더화(gendered)’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평가되어 왔다. 꽃 도매시장 역시 여성 상인의 비중이 높는데 특히, 하노이 출신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자의 비중이 높다. 이들은 가족을 떠나 혼자 이주해온 경우가 많으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 내 여성 생계부양자가 많은 현상은 개혁개방 이후 사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자영업 부문의 팽창을 야기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여성적인 일’로 여기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이 함께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꽃 시장으로 대표되는 상업 공간은 여성이 지배, 주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생산 노동(가사와 돌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여성 상인은 한 달에 최소 2-3번, 많으면 5번 이상 고향에 내려가 각종 가족 행사(결혼, 장례, 제사 등)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젊은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잦은 고향 방문과 재생산 노동의 의무 때문에 여성 상인은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때 다른 여성 상인과의 유대와 관계를 활용하여 서로 꽃을 팔아주는 Ban Ho 행위가 이루어진다. Ban Ho 행위는 또한 낮-밤 상인 관계를 매개하는 행위로 밤 상인의 공간을 무보수로 임대하는 낮 상인이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Ban Ho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은 크지 않으며, 대체로 무보수로 수행된다. 이는 밤-낮 상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며, 시장 내에서 위신이 높고 많은 상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인의 경우 더 많은 Ban Ho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감사드리며

장기 현지조사가 필수적인 인류학 연구에서 해외지역연구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드는 작업이다.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해내기가 어려우며 해외 조사를 위한 금전적 지원 역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두 달 간의 경비를 지원받아 박사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행운이자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 덕분에 현지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내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현지 역사와 관련된 자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들은 이후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연구자의 박사 논문에 필수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신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 담당자님과 아시아연구소에 감사를 드린다.